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박 경 수*, 김 대 원**

본 연구는 초·중등교사의 지속적인 기부행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사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기부행위 지속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는 기부 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액에는 성별, 연령, 종교, 이타적 동기, 자선단체의 유용성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기부지속의향에는 성별, 혼인, 종교, 기부 참여도와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 인식, 미래재정 상황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추천의향에는 성별, 기부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 인식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특성을 반영한 기부동기유발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기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부행위, 교사,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태도, 자선단체 인식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공동체의식 결여 등 국가나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은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및 공공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박경수 2010). 특히, 개인의 기부참여는 지역사회 내의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의식 향상 및 기부문화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²⁾

실제 민간자원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개인 기부는 선진국의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전체기부 중 개인기부자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Giving USA 2009) 비해, 우리나라는 기부규모나 참여 측면에서 개인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름다운재단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³⁾ 한국은 최근 개인별 기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부금 전체의 약 50%가 종교적 기부금이다(통계청 2011). 또한 개인별 기부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양은

1) 민간자원의 종류는 크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며, 물적 자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금, 기업의 협찬금, 일반 시민의 기부금품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자본은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

2) 기부는 기부자의 참여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현금이나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물질적 기부이며, 다른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비용을 대체하는 시간적 기부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부는 자발적으로 현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종교적의 의미로 내는 현금, 보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년 모금 총액은 3,692천억원인데, 그 중 개인이 1,183억원, 기업이 2,509천억원을 기부함으로써 개인기부는 전체의 32.0%에 머물고 있다.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손원익 2010).⁴⁾ 이처럼 상대적으로 개인기부가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개인기부는 소규모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도 접근하기 쉽고, 활성화 될 경우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민간자원동원에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복지의식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동안 개인기부에 대한 연구들(오혜진 2003; 고이경 2004; 정수영 2005; 이희정 2006; 송정민 2008; 전지연 2008; 최은숙·이석호 2011)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민의 전반적 기부의식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자료이나, 조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인이 소속된 직장, 사회, 단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세분화 하지 않고 같은 특성으로 간주하여 연구함으로써 기부에 관여하는 요인이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제시에 일정정도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직업군, 특히 공적 교육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초·중등교사의 기부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눔 실천의 교육자이자 매개자로서 교사들의 기부에 대한 의식과 실천은 미래의 잠재적 기부자인 학생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Independent Sector 2002; 서현선 2005; 강철희 2006; 아름다운재단 2006)에 의하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나눔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의 나눔과 봉사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들이 나눔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대할 수 있기 때문이

⁴⁾ GDP대비 개인기부액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0.58%인 반면, 2005년 기준 미국 1.67%, 영국 0.73%, 호주 0.69%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중등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눔 교육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국한되어 있으며(이종은·김미옥 2007; 이종은 2009; 전성실 2009), 그들의 직접적인 기부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초·중등교사의 지속적인 기부행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교사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의 기부 행태에 대한 기존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채워주는 기여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전문가 집단의 기부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부재 속에서 교사집단을 통해 이들의 행태를 탐색해 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2. 이론적 고찰

1) 기부와 기부행위 지속성

기부란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물질·시간적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복지의 목적과 자발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부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는 ‘Giving’, ‘Charity’, ‘Philanthropy’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은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Giving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harity는 ‘사랑으로 주어진 기부(give given out of love)’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 결과보다는 기부행위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자애, 자비, 박애, 사랑, 동정, 관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Philanthropy는 ‘깊은 인간애(love of humanity)’라는 라틴어

에서 파생된 말로 Giving이나 Charity와는 달리 계획적인 기부행위로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자발적 서비스 등 의도적인 기부과정의 개념이다(김유경 2003; 김남숙 2007).

Payton(1989)에 의하면 기부는 정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발전되어야 온전하며, 이는 친구와 친지 등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 자신이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선의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자원이전 이상의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부는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수단이자 시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며, 신뢰·소속감·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정선희 2002).

이 같은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기부자의 현재 기부행위 노력에 중점을 둔 기부금액, 미래의 기부행위에 중점을 둔 기부지속의향, 그리고 향후 타인에게 기부를 권유하고자 하는 기부추천의향을 들 수 있다(Sarenant et al. 2006; 이희정 2006; 송정민 2008; 김자영 2009). 먼저 기부행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서의 기부금액은 그 변화를 통해 기부행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기부지속의향은 기부대상 조직에 대한 충성도(commitment)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기부행위에 대한 만족감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부추천의향은 기업경영에서 소비자들이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재구매 하거나 타인에게 추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이 기부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은 일정한 시대에 어떤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 관습, 생각, 의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먼저 기부동기는 크게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타적 동기는 자발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타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며,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행해지는 행동적 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적 동기는 자아실현이나 성취욕구 등 건강한 자아지향적 동기를 의미한다. 자아지향적인 동기는 ‘즐거움’, ‘자기만족’에 대한 신념과 가치로써 이타적 동기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조휘일 2002; 2004). 기부동기와 관련하여 장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개인기부자들이 타인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병호(2008) 연구에서도 이타적 동기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타적 동기 중에서도 동정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부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 사회의 다수 성원이 특정한 의식과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화적 요인으로서 기부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김성기 2007). 관련 연구에서 하희정(2005)은 기부태도가 높을수록 기부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 중 참여도가 사회심리적 변수들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한편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 또한 기부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성과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믿음은 모두 관대한 기부자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자선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선단체를 선호하게 만들고 이는 기부대상 단체에 대한 헌신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하희정 2005). 김유나(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가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변수로 조사되었고, 하희정(2005)의 연구에서도 기부의향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 중 신뢰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의 조사(2010)에서도 자선단체의 신뢰성이 기부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2) 경제적 요인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구 소득, 사회활동비용,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소득은 기부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써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경제적 접근방법인 항상소득이론(Permanent Income Theory)으로 설명되어진다.⁵⁾ 항상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 이론은 사람들이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려준다. 항상소득이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미래재정상황에 대해 낙관적일수록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Drollinger & Johnson 1995). 김성기(2007)는 개인소득이 기부노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송정민(2008)의 연구에서도 월 개인소득은 기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임병호(2008)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기부활동 예측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고 김성기(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경

⁵⁾ 항상소득이론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Friedman(1957)이 주창한 소비함수이론인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것으로,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변동성이 큰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성격의 항상소득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강철희 2003).

제적 특성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기부금액의 차이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금액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 중 사회활동비용은 친목회나 경·조사 참여 등 사회인으로서 행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성기(2007)의 연구에서 기부자의 기부금액과 기부노력의 변화특성을 분석한 결과 친목·동문회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전반적인 사회활동비용 지출이 활발할수록 기부금액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기부행동과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 역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김유나(2002)의 연구는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염려정도가 한 단위씩 낮아질 때마다 예측되는 기부행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기(2007)의 연구에서는 기부금액이나 기부노력과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태도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기부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래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기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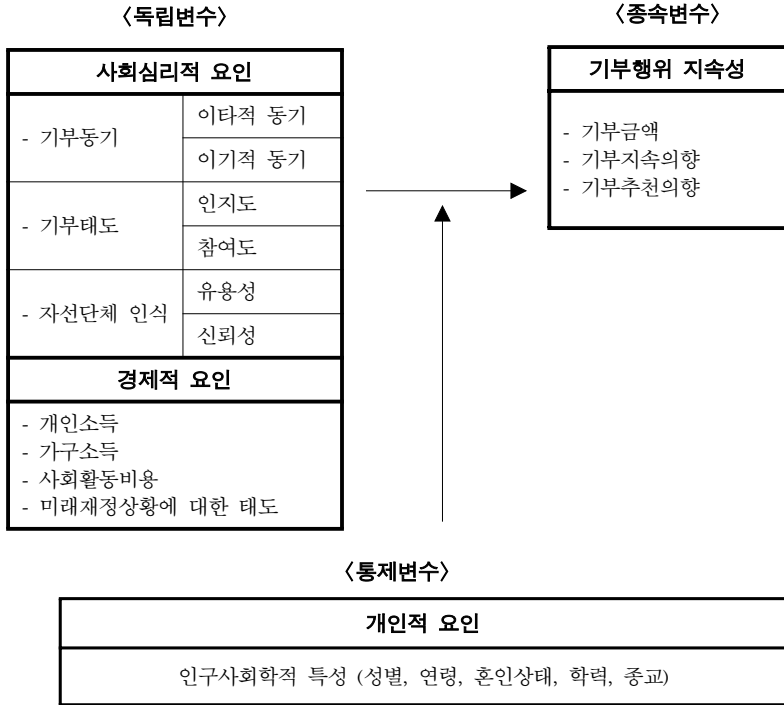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사회심리적 요인인 기부동기(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기부태도(인지도, 참여도), 자선단체 인식(유용성, 신뢰성)과 경제적 요인인 개인소득, 가구소득, 사회활동비용,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 요인이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에 각각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기부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성격을 대표

할 특정학교들을 임의로 선정, 비례배분법에 의해 기부경험이 있는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했으며 2011년 3월 14일에서 2011년 3월 28일까지 우편발송, E-mail, FAX 등을 통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3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217부를 회수하여 94.3% 회수율을 얻었고 이들 중 212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조사도구 구성

종속변수	기부행위 지속성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독립변수	사회심리적 요인	기부동기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기부태도	인지도
			참여도
자선단체 인식	신뢰성		
	유용성		
통제변수	경제적 요인	개인소득 가구소득 사회활동 비용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	
		개인적 요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1) 기부행위 지속성

기부금액은 2010년 한해동안 응답자의 자선적 기부 총액을 파악했으며, 이 중 종교적 기부는 제외하였다. 또다른 하위변수인 기부지속의향은 Sargeant et al.(2006)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충성도(commitment)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자영(2009)의 척도를 인용하였다. 질문은 사회복지기관 기부에 대한 생각, 사회복지기관의 장기적 성공에 대한 관심 등 4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부지속의향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54로 나타났다. 기부추천의향은 김자영(2009)의 척도를 적용하였다. 질문은 기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선호정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등 총 4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58로 나타났다. 기부추천의향에서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심리적 요인

기부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나누어 각각 5문항씩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각각 하위변수에 대한 척도 점수가 높은 것이 기부동기(이타적동기, 이기적 동기), 자선단체의 인식(신뢰성,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들이 기부를 할 때 제시한 각각의 기부동기를 묻는 질문으로 하회정(2005)의 척도를 인용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70으로 나타났다. 기부태도는 기부의 기대효과를 측정하는 인지도와 기부에 참여할 의향정도를 묻는 참여도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laman(1996)이 개발한 문항을 유수진(2001)이 부분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인용하였다. 기부의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 등 7개 문항을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94로 나타났다. 자선단체에 대한 태도척도는 Drollinger(1997)가 개발하고 김유나(2002)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단체의 기능과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정도를 파악하는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단체의 기능 효율성 및 역할 등에 대한 유용성으로 분류하여 6문항을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28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개인의 월 평균소득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2010년 한 해 동안 친목·동분회비와 경조사비 등 사회활동비용을 파악하였다.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 문항은 자신의 미래재정상황 심각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현재보다 아주 좋아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현재보다 아주 많이 나빠질 것이다’와 같이 5점 서열척도로 조사하였다.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개인적 요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위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요인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오혜진 2003; 김성기 2007; 임병호 2008; 김자영 2009). 통제변수 중 성별(1=남성, 0=여성), 혼인상태(1=기혼, 0=미혼), 최종학력(1=대학원 재학 이상, 0=대학교 졸업 이하), 종교(1=있음, 0=없음)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모델에 입력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종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44명(20.8%), 여성 168명(79.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교사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은 20대 26명(12.3%), 30대 64명(30.2%), 40대 54명(25.1%), 50대 이상 68명(40.1%)

<표 2>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성	44	20.8
	여성	168	79.2
연 령	20대	26	12.3
	30대	64	30.2
	40대	54	25.1
	50대 이상	68	40.1
혼인상태	미혼	52	24.5
	기혼	160	75.5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112	52.8
	대학원 재학 이상	100	47.2
종 교	있음	128	60.4
	없음	84	39.6
합 계		212	100

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기혼 160명(75.5%), 미혼 52명(24.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112명(52.8%), 대학원 재학이상 100명(47.2%)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 교사가 128명(60.4%),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가 84명(39.6%)으로 나타났다.

2)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관여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요인(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기부의 인지도와 참여도,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과 경제적요인(개인소득, 가구소득, 사회활동비용,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각의 단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려면 회귀진단을 통해 회귀식의 적합성을 감소시키는 다중공선성⁶⁾ 문제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서 공차한계(Tolerance limit)⁷⁾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상승요인)⁸⁾ 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값이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⁶⁾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사이의 선형종속(Linear Dependency)의 관계로 정의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로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 다른 독립변수들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는 회귀모형 내에서 독자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⁷⁾ 공차한계는 $1/VIF$ 로 정의한다.

⁸⁾ VIF가 10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독립변수가 나머지 독립변수에 의해 90% 이상이 설명된다는 뜻이므로 이는 반응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독립변수가 굳이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

알 수 있다.

(1) 기부금액에 관여하는 요인

두 개 모델의 회귀식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만 투입된 모델 1단계($F=16.839, p<.01$)와 개인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이 함께 투입된 모델 2단계($F=14.082,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하위변수인 기부금액의 전체 변량을 29.1%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beta=-.268, p<.01$), 연령($\beta=.523, p<.01$), 종교($\beta=.240, p<.01$)가 기부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서 연령과 종교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성별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별은 여성일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기부금액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모델 2단계의 설명력은 51.9%로 나타나 모델 1단계에서 모델 2단계로의 변화량은 22.8%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설명력의 변화량 값이 22.8%라는 것은 개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사회심리적 요인 하위변수들과 경제적 요인 하위변수들만의 기부금액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의미하며, 그 증가량은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술한 통제변수 군들의 영향력을 제외한 후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들은 기부금액 분산의 22.8%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단계에서 성별($\beta=-.229, p<.01$), 연령($\beta=.352, p<.01$), 종교($\beta=.172, p<.01$), 이타적 동기($\beta=-.154, p<.05$), 자선단체의 유용성($\beta=.162, p<.05$), 사회활동비용($\beta=.418, p<.01$)이 기부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변수들 중 연령, 종교, 자선단체의 유용성, 사회활동비용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성별, 이타적 동기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의미한 독립변수들 간의 Beta값을 살펴본 결과, 사회활동비용($\beta=.4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선단체의 유용성($\beta=.162$), 이타적 동기($\beta=-.154$) 순으로 기부금액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부금액에 관여하는 요인(N=212)

단계 변수	1단계					2단계				
	B	S.E	β	t	VIF	B	S.E	β	t	VIF
상수	-24.548	8.014		-3.063		1.214	25.418		.048	
성별	-28.770	6.850	-.268	-4.200**	1.185	-24.531	6.118	-.229	-4.101**	1.325
연령	21.754	3.438	.523	6.328**	1.985	14.649	3.998	.352	3.664**	3.765
혼인	-11.060	7.949	-.109	-1.391	1.796	-11.358	7.105	-.112	-1.599	2.011
학력	4.424	6.105	.048	.725	1.300	-5.263	5.607	-0.58	-.93	1.538
종교	21.055	5.183	.240	4.062**	1.0132	15.105	5.216	.172	2.896**	1.438
이타적 동기						-12.799	5.753	-.154	-2.225*	1.963
이기적 동기						1.875	4.049	.028	.463	1.458
인지도						3.722	5.821	.046	.639	2.099
참여도						7.523	4.292	.109	1.753	1.577
신뢰성						7.108	4.765	.105	1.492	2.004
유용성						12.015	5.451	.162	2.204*	2.208
개인소득						-.628	2.204	-.026	-.285	3.349
가구소득						1.102	1.428	.052	.772	1.832
사회활동 비용						.105	.016	.418	6.460**	1.709
미래재정 상황태도						2.895	3.289	.049	.880	1.262
R ²	.291					.519				
Adj. R ²	.274					.482				
F change	16.893**					9.281**				
F	16.893**					14.082**				

*p<.05, **p<.01

(2) 기부지속의향에 관여하는 요인

개인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 1단계($F=8.169$, $p<.01$)와 개인적 특성과 독립변수 모두를 투입한 모델 2단계($F=6.085$, $p<.01$)는 회귀식의 유의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1단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기부행위 지속성의 하위변수인 기부지속의향의 전체 변량은 22.8%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 중 성별($\beta=.228$, $p<.01$), 혼인($\beta=.350$, $p<.01$), 종교($\beta=.310$, $p<.01$)가 기부지속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남성일수록, 혼인상태는 기혼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사회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함께 투입한 모델 2단계는 설명력이 41.6%로 나타났고 모델 1단계에서 모델 2단계로의 변화량은 18.8%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특성을 통제 했을 경우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들만의 기부지속의향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이 18.8%이며, 그 증가량은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상술한 통제변수 군들의 영향력을 제외한 후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들은 기부지속의향 분산의 18.8%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단계에서 성별($\beta=.230$, $p<.01$), 혼인($\beta=.371$, $p<.01$), 종교($\beta=.296$, $p<.01$), 기부 참여도($\beta=.236$, $p<.01$), 자선단체 신뢰성($\beta=.234$, $p<.05$), 자선단체 유용성($\beta=.222$, $p<.05$),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beta=.154$, $p<.05$)가 기부지속의향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7개 변수들 중 성별, 혼인, 종교, 기부 참여도, 자선단체 신뢰성, 자선단체 유용성,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는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회기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에서 남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리적 요인에서는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높을수록 기부지속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기부지속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Beta값을 살펴보면, 기부 참여도($\beta=.236$), 자선단체의 신뢰성($\beta=.234$), 자선단체 유용성($\beta=.222$),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beta=.154$)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지속의향에 있어 기부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기부경험이 자선단체 인식 혹은 미래재정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기부지속의향에 관여하는 요인(N = 182)

단계	1단계					2단계				
	B	S.E	β	t	VIF	B	S.E	β	t	VIF
상수	3.188	.113		28.179		2.522	.413		6.112	
성별	.332	.094	.288	3.526**	1.197	.265	.092	.230	2.878**	1.401
연령	-.080	.047	-.179	-1.711	1.952	-.059	.057	-.131	-1.024	3.581
혼인	.383	.110	.350	3.485**	1.803	.407	.105	.371	3.884**	2.002
학력	-.124	.085	-.128	-1.456	1.378	-.139	.089	-.144	-1.559	1.868
종교	.294	.072	.310	4.103**	1.0242	.281	.082	.296	3.419**	1.642
이타적 동기						.035	.090	.037	.384	2.046
이기적 동기						.111	.065	.159	1.701	1.926
인지도						-.083	.093	-.090	-.894	2.221
참여도						.181	.063	.236	2.900**	1.453
신뢰성						.188	.081	.234	2.315*	2.238
유용성						.178	.083	.222	2.150*	2.337
개인소득						-.011	.033	-.044	-.339	3.758
가구소득						.041	.021	.176	1.925	1.828
사회활동 비용						.000	.000	-.127	-1.375	1.872
미래재정 상황태도						.099	.050	.154	1.989*	1.315
R ²	.228					.416				
Adj. R ²	.200					.348				
F change	8.169**					4.120**				
F	8.169**					6.085**				

* $p < .05$, ** $p < .01$

(3) 기부추천의향에 관여하는 요인

두 모델의 회귀식의 유의성은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1단계 ($F=4.083, p<.01$)와 모델 2단계에 독립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델 2단계 ($F=6.124, p<.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델 1단계에서 종속변수의 하위변수인 기부추천의향의 전체 변량을 10.4%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 중 성별($\beta=-.215, p<.01$), 종교($\beta=.185, p<.05$)가 기부추천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성별은 부적 관계를, 종교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므로 여성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단계는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1단계에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투입시킨 결과로, 35.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델 1단계에서 모델 2단계로의 변화량은 25.2%가 증가했다. 즉 설명력의 증가량 값인 25.2%는 개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들만의 기부추천의향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증가량 값인 25.2%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 2단계에서는 성별($\beta=-.242, p<.01$), 기부에 대한 인지도($\beta=.290, p<.01$)와 참여도($\beta=.241, p<.01$), 자선단체의 신뢰성($\beta=.204, p<.05$)과 유용성($\beta=.190, p<.05$) 그리고 가구소득($\beta=.187,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기부의 인지도와 참여도,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 가구소득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개인적 요인에서 여성일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았고,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는 기부의 인지도가 긍정적일수록,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높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독립변수들 간의 Beta값을 보면, 인지도 ($\beta=.2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도($\beta=.241$), 신뢰성($\beta=.204$), 유용성($\beta=.190$), 가구소득($\beta=.187$) 순서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부추천의향에 관여하는 요인(N = 144)

단계	1단계					2단계				
	B	S.E	β	t	VIF	B	S.E	β	t	VIF
상수	3.370	.126		26.781		.861	.434		1.982	
성별	-.282	.100	-.215	-2.808**	1.152	-.317	.093	-.242	-3.410**	1.302
연령	.080	.056	.154	1.441	2.231	.091	.063	.175	1.449	3.760
혼인	-.088	.127	-.070	.692	1.990	-.087	.116	.069	.753	2.157
학력	-.035	.093	-.031	-.371	1.342	-.092	.090	.082	1.017	1.656
종교	.205	.080	.185	2.547*	1.322	.098	.084	.088	1.171	1.468
이타적 동기						.035	.096	.031	.365	1.894
이기적 동기						.117	.065	.135	1.818	1.413
인지도						.313	.094	.290	3.343**	1.938
참여도						.209	.064	.241	3.269**	1.396
신뢰성						.177	.076	.204	2.336*	1.967
유용성						.176	.083	.190	2.110*	2.084
개인소득						-.034	.034	-.113	-.990	3.361
가구소득						.049	.022	.187	2.210*	1.845
사회활동 비용						.000	.000	-.118	-1.412	1.803
미래재정 상황태도						.013	.052	.018	.252	1.300
R ²	.104					.356				
Adj. R ²	.078					.298				
F change	4.083**					6.506**				
F	4.083**					6.124**				

*p<.05, **p<.01

5.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는 초·중등교사의 지속적인 기부행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사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행위 지속성을 예측하는 기부금액 요인에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종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부금액의 차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기부금액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이 아동 및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이고, 상당수의 여성교사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부금액이 높아졌는데 이는 선행 연구(송정민 2008)와도 같은 결과로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 지위 향상이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이에 비례하여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교사가 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이타적 동기가 낮을수록, 자선단체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타적 동기가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많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김남숙 2007; 임병호 2008; 류인권 2010)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이타적 동기 때문만으로 기부하기 보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책무성, 그리고 직업윤리 등에 의한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⁹⁾ 또한 자선단체의 유용성은 ‘자선단체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자선단체가 역할을 제대

⁹⁾ 이러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측정방법이나 도구의 문제로 선행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 한다고 인식할수록 기부하는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회활동비용이 정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활동비용이 많을수록 기부금액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김성기 2007)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둘째, 기부행위 지속성을 예측하는 기부지속의향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혼인, 종교가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 남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참여도와 신뢰성 그리고 유용성이 정적인 관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참여도와 신뢰성, 유용성이 각각 높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선단체의 유용성과 신뢰성 모두 기부행동을 예측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연구(김유나 2002)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요인에서는 미래재정상황에 대한 태도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재정상황에 대해 낙관적일수록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항상소득이론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부행위 지속성을 예측하는 기부추천의향 요인에서 여성일수록 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는 인지도와 참여도 그리고 신뢰성과 유용성이 높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부지속의향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유사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추천의향은 기부태도가 긍정적일 때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들의 기부행위지속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들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부행위 지속성에

있어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기부지속성 하위변수에 관여하는 요인

변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인구사회 학적 요인	성별	-	+	-	
	연령	+			
	혼인상태		+		
	학력				
	종교	+	+		
사회심리 적 요인	기부동기	이타적 동기	-		
		이기적 동기			
	기부태도	인지도			+
		참여도		+	+
	자선단체인 식	신뢰도		+	+
유용성		+	+	+	
경제적 요인	개인소득				
	가구소득			+	
	사회활동비용		+		
	미래재정상황태도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나눔의 내재화 역할을 수행하는 초·중교사들을 표적화(targeting)하여 그들의 기부행위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기반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교사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부문화 확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에 대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교사들의 기부행위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부행위 지속성에 대한 변수 요인 중 자선단체인식의 하위 항목인 신뢰도와 유용성 또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유용성이 기부 지속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자선단체의 신뢰성과 유용성 확보를 위해 단체들은 기부금의 사용 용도와 성과들을 기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인지함과 동시에 자선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의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초·중등 교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교사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설명변인들 또한 어느 집단에서나 적용 가능한 변인들로 국한되어 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를 담보하거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과 중등 교사들을 구분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등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변인들을 추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분석방법도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교사의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심도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3일 접수, 10월 28일 심사완료, 10월 2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영리연구』. 59(3). 5-32.
- 강철희. 2006. “나눔의 사회화 전략-나눔문화 구축을 위한 대안 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제발표자료.
- 고이경. 2004. “기부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 2007. “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기. 2007. “개인기부자의 기부행위에 관한 실태분석.”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03. “온라인 기부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적, 사회심리적, e카드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나. 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온라인 기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2009. “기부 만족도가 지속적 기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비스 만족도와 욕구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인권. 2010. “한국의 기부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경기도청 공무원의 기부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수. 2010.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 『2011연간보고서』.
- 서현신. 2005. “Philanthropy Education to Children of NGOs to Promote Civil Society: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손원익. 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송정민. 2008. “개인의 기부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름다운재단. 2006. 『2005 한국인의 기부지수』.

- 아름다운재단. 2010. 『2009 한국인의 기부지수』.
- 오혜진. 2003. “자선적 기부참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진. 2001.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은. 2009. “나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Concept Mapping을 활용한 모델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은·김미옥. 2007.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1). 111-163.
- 이희정. 2006. “공동모금 개인기부자의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병호. 2008. “시민의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 2009. “개인기부자의 기부의향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연령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실. 2009.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교육의 필요성.” 『오늘의 청소년』. 25(3). 14-18.
- 전지연. 2008. “개인기부자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 2002. “한국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 『비영리 지식포럼 자료집』.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휘일 편. 2002.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 서울: 학지사.
- 최은숙·이석호. 2011.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집』 115-140.
- 통계청. 2011. 『가계동향 조사』.
- 하희정. 2005.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rollinger, T. L. 1997. "A multiple model of monetary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Purdue University.
-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106-112). Washington D. C.
- Friedman, M. 1957. "A the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r the NBER.
- Independent Sector. 2002. Engaging youth in lifelong servic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encouraging a tradition of voluntary action among America's youth. 6.
- Payton, R. L. 1989. "Philanthropic Value, Philanthropic Giving." Oxford University Press.
- Salaman Lester, Helmut Anheir, Wojciech Sokolovski. 1996. "A Statistical Supplement." The Emerging Sect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Sargeant, A., Ford, J. B., and West, D. C. 2006.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 155-165.
- www.givingusa.org

A study on the variable factors affect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sustained donation

Kyung-Su Park · Dae-Won Kim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variable factors having influence on the teachers' donations persistence and providing fundamental data that could contribute to a increase in donations by teachers who are supposed to play key roles in promoting donation culture through education.

The sub-variables of donations persistence was composed the amount of donations, willing to donate persist, willing to donate recommended. Donation amount was influenced by the gender, age, religion, charity's altruistic motives, perceived usefulness influenced. Willing to donate lasting sex, marriage, religion, donation participation, the charity's credibi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s about the future financial situation was significantly. And recommendations willing to donate the gender, dono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were also recognized the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charities involved.

As a result, donations persistence of the teachers involved in the fac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motivate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manuals,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to increase awareness for the donation, and the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reliability for charities should be made.

Key words: donation, teachers, amount of donations, willing to donate persist, willing to donate recommended, donation attitudes, charitable organization recognized